

총신교회 새 생전 조감도

영간주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교회

78 9월호



심은 대로 거두리라

-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아 -

우리 중현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지 어언 25주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이토록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 우리에게는 만사가 다 감사할 것뿐이요 일년 365일이 모두 감사한 날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9월 교회설립 기념의 달을 맞이하면 더욱 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 같다.

성경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또는 바를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두게 되고 의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공효하심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다(호8:7, 10:12).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 역시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우리 중현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25주년이 되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모두 18명의 신도가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만명의 신자를 해아리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 그 동안에 맺어놓은, 또 맺어가고 있는 열매들이 여러 면에서 결실하여 가고 있음을 본다. 감사한 일들이다.

국내적으로 민족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의 한가지는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과 개척교회설립과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 등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교회가 맺고 있는 좋은 열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1971년 9월에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을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은 애굴에 이연호 선교사, 홍콩에 홍종만 선교사, 서독에 육호기 선교사 일본에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제 주는 교회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표어에 따라 후방에 있는 온 성도들이 이 선교의 대열에 참가하고 있음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지난 9월 3일 주일 밤에배시에는 음악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

다. 우리교회 제1·제2·여성 그리고 대학 이렇게 4부 성가대가 연합으로 한달 이상 준비한 하이든(J. Haydn)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The Creation) 연주회가 있었다. 그 규모도 컸거니와 이번 연주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았었다고 생각한다. 1808년 고령의 하이든이 바인대학 강당에서 친히 이곡을 연주했을 때, 연주장 안팎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너무나 큰 성황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난번 우리교회의 천지창조 연주회의 그 밤에도 유례없이 많은 성도가 참석 예배당 창밖에서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동과 감명을 받고 기뻐하였다.

이것도 하나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어서 속히 큰 성전을 완성하여 이와같은 모임을 마음껏 가졌으면 하는 생각조차 하여 보았다. 이처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또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 면에서 주령주령 맺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돌려보낸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자궁할 것은 도무지 없다. 그래도 오히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한두가지 예만 지적하면 첫째로 해외 복음선교회 회원이 아직도 1천명나마밖에 안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교회는 10년 전에 해외복음선교회를 조직, 동남아시아를 비롯 유럽 또 공산세계에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 이마당에 1만명 성도 중에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자가 그 몇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적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물론 기도도 협력하는 일이야 다 하겠지만.

그리고 또한가지 부족한 점은 이번 25주년 기념행사 중에 성경암송대회를 보고 느낀 점이다.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너무나 그 수가 적었던 것 같다. 범교회적인 행사로 오래 전부터 광고하고 준비하였는데 12부 주일학교는 물론 그외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도 참가자가 너무나 적었다. 큰 교회일수록 이와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괜찮을 거야. 이런 정신은 교회는 물론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주간)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9월의 행사 ■

- 9/3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일
정기제직회 월간충현 분과회
- 9/8 교회철야기도회
- 9/10 남전도회·권사회·산업전도회 월례회
대학부원신에배
- 9/16 추석합동성묘
- 9/17 여전도회·출판위원회·선교회실행위원회
월례회
- 9/23 설립 25주년기념 웅변대회
- 9/24 월간충현 9월호 발간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 월례회·고등부원신에배
- 9/26 정기당회
- 9/28 추계 성례식(세례식)
- 9/30 고등부 선교음악회

제 6 권 제 57 호

월간 충현

■ 9월호 차례 ■

<권두언> 심은 대로 거두리라/주간.....2
<담회장 김목사님과 함께>/편집실4
<평신도를 위한 특별논단>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이양우 전도사8
<해외교우의 글>모국교회의 힘이 필요 /지동방 장르.....13
<화보>충현교회 주일학교/고계원 집사.....15
<어린이의 글> 즐거운 교회생활/신양중·김양희...14
<찬송가감상⑧>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중석 전도사.....14
<도서정보> 8월중 구입한 도서등
<추천하고 싶은 책>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활의 비결/김석원 전도사.....23
<독자의 글> 빛/조현명 장르.....24
<중풍여행기> 특이한 신혼여행.....25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무더위 속에 넘치는 은혜가/이해봉26
<시편에서 듣는 주간의 만나>27
<이달에 만난 사람>이성근 목사/편집실28
<구역소식>
<구역장노우트②> 임종과 장례를 돕는 길③ /백성룡 목사.....29
<구역공과> 10월분 (①②).....30
<교회소식>.....32
<편집후기, 광고>.....34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35
<실로암못가에서>.....36

표지설명 : 교회설립 30주년을 바라보는 새성전의 모습(조감도)

충현교회 신조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세계를 향한 충현의 꿈

◇◇◇...청년기의 충현교회는 날로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다...◇◇◇
 ◇◇◇...젊음의 꿈은 피처럼 뜨겁고 힘차게 정진하고 있다. ...◇◇◇
 ◇◇◇...이러한 충현교회에 대해 25주년을 맞아 30주년 내지...◇◇◇
 ◇◇◇...는 35주년을 향한 방향과 미래상을 당회장 김 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엮어 본다. ...◇◇◇

때 : 1978년 8월 30일

곳 : 선교사무실

대담자 : 정 은 표 집사(월간충현 편집위원)
 이 형 수 집사(월간충현 편집국장)
 고 제 원 집사(월간충현 간사)

질문 : 오늘은 저희가 교회설립 25주년 기념 특집호로 25주년을 맞는 충현교회와 더 나아가 30주년 35주년을 내다보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겠기에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이 갖고계신 생각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안타까운 점과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육·선교·목회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사님 :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25주년 하게 되면 이제는 청년기에 접어들었어요. 비록 실수는 할지언정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공상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딴 있었어요.

일을 하되 일하는 목적이 내가 늘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관계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고 오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앞에 댕댕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한다고 했는데 이 목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줄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 화복을 유지해야지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 화복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복시키는 일은 전도·설교·성경강해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그들이 하나님과 화복하지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똑바로 힘있게 해야 하고 한걸음 더 나가서는 천국일군을 확실하게 제한없이 많이 키워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지도자의 자질이 충실해야 되겠지요 세계는 한국 더 나아가 세계를 내일로 삼고 내 조그마한 것만 잡고 있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덩어리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님 오실때까지 면적에서는 털끝만치도 변질이 없겠지만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그 빨라지는 만큼 지구는 인간생활면에서 하루권 내에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좁아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터는 지구덩어리 전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앞으로 하는 일도 지구덩어리 전부를 상대로 하여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지구덩어리 전부를 상대로 하고 일하는 것이니까 선교사업을 해야 하고 그만큼의 우리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만 키우지 말고 세계를 상대로 하고 각 나라를 상대로 일군을 키워야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드나들 때에 그들이 대한민국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해 하고, 또 한 우리가 세계 각 나라에서 일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일군을 우리 신학교에서만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세계를 상대로 키워야겠지요.

그런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41년동안 목회를 해 왔는데, 41년의 목회생활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한 3년동안 더 여러나라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좀더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후진들을 바로 키울 수 있겠는지 그 기쁨을 준비하기 위해 한 3년을 더 계속해서 여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그때야 내가 만 65세 될 때에는 청사진이라도 낼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교회 청사진 닐터

목회·선교·천국일군 키우는 면에서 이 청사진을 그려놓고서 내가 후퇴해야지 더 나아가 그 청사진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꾼들이 각 나라에 가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학교를 선정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도 준비해야겠고 또한 어떻게 하면 공산권내 전체를 향해서 선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북한에 선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몇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동안 여행을 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보이며 앞으로 우리 상상 못했던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요.

이번에 10월 4일부터 24일이나 25일까지 20일 동안 대만을 거쳐서 홍콩 일본을 다녀 오려고 합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은 세계기독교반공대회가 자유중국 대북에서 열리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고문이고 아시아기독교반공대회 명예총재로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하고 또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은 중국 평신도대회가 열리는데 그 평신도대회는 세계의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뜻있는 사람들이 중국본토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격려사를 하도록 부탁받았지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 대만에 가 봐야 되겠고, 그 대회를 마친 다음에는 그들이 중국본토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홍콩에 가서 홍콩만 선교사라고 연결시키면서 거기서 다시 본토에 들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중국 본토 선교에 가능성 많아

그리고 홍콩만 목사와 연락을 해서 그 교회가 원하던 밑에주려고 하고 일본에 가서는 아시아기독교반공대회에 현 총재로 계시는 목사님과 그 일의 타협을 위해 회담을 하고 일본에 있는 저쪽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자 하며 그리고 동경에 북한선교회 지회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조직이 어느만큼 왔는지 또 대만에 내려가 한국사람에게 부탁한 일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중공에는 문이 거의 절반이상 열렸습니다. 성경책 열권을 가지고 들어가도 조사도 안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믿고 좀 더 충실히 일을 하여 중공에 마음대로 출입하며 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남은 목회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더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예배당도 다 지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몇 년 동안 기다려 보니 세월만 흐르고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 선교·새가정 주일학교 신설

그래서 25주년을 기해서 26주년부터는 주일학교를 두 부(部)를 더 늘이는데, 주일날 모일 수가 없으니까



평일날 모이기로 하여 화요일 저녁에는 선교주일학교(중학교 이상 40세 정도까지 학생으로)가 개설되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과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를 돌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남아메리카에 동남아시아 등지로 가고 싶은 지역을 어려서부터 백해 가지고 그곳의 역사·지리·풍속·식생활까지 모든 면을 조사시키면서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 거기에 선교사가 언제 가서 어떻게 실패를 했으며 어떻게 성공했느냐까지 종합시켜 가르쳐 주면서 어려서부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 주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신학교 갈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국일군을 세계적으로 키우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 목요일날 저녁에는 새가정주일학교를 개설하려 합니다. 새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 새가정을 꾸민 사람들에게 새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새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며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새가정의 모든 면에 대해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가정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가정주일학교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위생법·식도법까지 성경적으로 뽑아 올바른 교육합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내어 개척하면 한국 아니 전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러한 방법으로 천국일군을 키우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계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함이

우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산업전도교육부와 노년부는 상당한 효과와 성과를 거두고 있지요.

한결을 더 나아가 서울과 미국에 순영어로만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워 애굽·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 기타 각 나라의 뜻있는 젊은이들을 데려다 훈련시켜 자기네 백성에게 전도하게끔 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 공산권내에까지 침투시켜 전도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교회는 우리교회 하나만 위해서 일해가지고는 안될 줄로 압니다. 첫째

“개척이라는 것은 과학자의 발명과 같아서 시작하는 것
부터 꼭 맞아드는 것도 아니고 시작할 때마다 다 이해
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는 열번 실패하다
가도 한번 맞추면 성공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그와
같으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둘째 내 백성 전체를 위
해서 일해야 되고 세째는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큰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교
회 교역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뜻만
있으면 신학대학원에 보내 대학원까지 시키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유학시험을 치워 한 2~3년씩 내보냈다
가 데려 올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 여러 곳과 지금 손잡고 있으며 비행기
표만 태면 거기서 먹고 입고 공부하는 비용은 부담하
겠다는 때가 여러곳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부하면서 부
지도자로 부목사로 그곳 교회에 시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갔다오면 다음 사람이 가고 하는 식
으로 계속적으로 일꾼을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목사님께서 65세되시는 해에 총현교회의 청사진

후계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에
기도만 할 뿐

을 그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청사진을 보
고 이어갈 사람이 필요할 텐데 후계자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그리고 청사진이 나온
뒤에 후계자가 지목된다면 낯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 그것은 사람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
목해 주시겠지요. 지금도 많이 크고 있으니 어느 사
람이 어느 시기에 지목이 될지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
시고 지목해 주시겠지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할뿐
이지요. 내가 원해 든든지 못해 내가 언제 어떻게 될
런지 모르니 청사진을 그리는 동안에도 누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청사진을 그리겠는가? 또
수정해 가면서 일할 수 있겠는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청사진은 다윗 임금님이 다
그려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좀 더 큰일을 하고 싶었으
나 못하고 죽는다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
면 좋겠다는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생
각하면 후계자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함을 느낍니다
질문 : 지금까지 목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러한 좋은 포부와 꿈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
을 뒷받침해 주며 목사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보좌할 수 있는 체제가 시급하다고 생
각하며 이상의 말씀하신 계획이 보좌해주는 사람이 없
어 그냥 뒤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되며 때
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
시오.

목사님 : 참 좋은 말씀인데 즉 각 분야에 비서를 여럿
두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선 나
자신이 아직 부족하고 또 하나는 내가 계획하고 일할
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 아니될 수
밖에 없지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 하나 개척해
나아가니 이해가 어렵지요. 개척이라는 것은 과학자의

발명과 같아서 시작하는 것부터 꼭 맞아드는 것도 아
니고 시작할 때마다 다 이해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
다.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열번 실패하다가도 한번 맞
추면 성공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그와 같으니 이해
를 못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꿈은 바로 과학자의 꿈과 같아

과학자가 연구하는 동안 얼마나 오해·모략·증상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일도 못 땀고 죽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의 꿈인데 나도 내가 일은 다
해보고 죽을 마음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으므로 그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얘기하여 그 얘기가 후세에 오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만 믿고 하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구도 이해 못해 주면 일이더라도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일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 총현교회 젊은이들에게 바라고 싶은것
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소극적인 인물이 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이거 되겠나?” “이 일 안 될거야?” “고생
만 할 거야?” 이러한 말은 일체 하지 않는 교회를 꼭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꿈은 바로 그것입니다. 적극적
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싸주시는 인
물만 되겠노라”고 결심하고 “어떤 일이라도 명명만 하
옵소서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일을 감당
하겠나이다”하는 적극적인 교인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질문 : 성공적인 목회자로서의 목사님과 성공적인 신앙
인으로서의 목사님을 누구나 많기를 원하는데, 실제 설
교의 말씀만으로 목사님의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탐
을 수 없기에 후손을 위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방법
을 찾아야 할 때가 온 줄로 알고 있고 보다 다른 차원
에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리라 보고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

목사님 :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할 것 없이
특히 교회일을 보는 것 결혼식 장례식 기타 교회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대해 영화를 만들어 두어
겠어요. 전로부터 생각했으나 실천이 안되었는데, 이
번 25주년 기념행사만이라도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번에는 만들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기 위
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겠는데... 설교집도 좋고 녹음테이프도 좋지만 영화를 보게 되면 좀 더 실감이 있고 좋지요.

질문: 행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이 또한 교회방향이전 교인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되어 최소한 중현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로 보면 그 중간단계 즉 교회의 방향이나 목사님의 계획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계획 및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켜 짧은 시간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새로운 것을 개척하여 만들면서 나가야 되지요.

전문가가 필요한 주일학교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 아무때도 전문분야를 더 두어 가지고 모든 면에서의 전문교육면에서도 중등부를 위해서 일생 죽을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해요.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키워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뚜렷한 사람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나는 영아부, 나는 유년부만 위해서 평생 살다 죽겠다는 생각으로 그것만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중현교회는 그러한 전문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그분은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겠지요.

목사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을 현재 구하고 있는데 좀처럼 없어요. 이 틈만큼 내가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당회장 되는 꿈을 꾸지 말고 너는 유년부를 위해서 네 일생을 기도하다 죽어라 하는 것을 앞으로는 하나 하나 끝까지 맡겨야 되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선교지역도 중학교 일학년부부터 내가 어디를 선교하겠다는 것을 훈련시켜 기도하면서 연구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교역자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그러한 주일학교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 대학부 청년들을 위해 일하다 죽겠다며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교회의 보배가 되고 세계의 보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것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비서를 몇사람 두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질문: 자료실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당장의 쏟아지는 자료마저도 분류정리를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데 특별히 관심이 있는 신학생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실 운영하고 교재편찬까지도

목사님: 자료는 분류·정리 되어야지요. 앞으로 자료실을 설치하면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재편찬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면 세계적으로도 남을 것이며 후세에도 길이 남을 것이지요. 그리고 자료 전달 신학생 키우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일군을 선교주일학교를 통해 키우고자 합니다. 사명의식을 갖고 들어가는 부(部)이기 때문에 일군을 훈련시키고 일군 뽑는 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구역카드 정리를 컴퓨터 카드화하여 처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발아볼 수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 좋지요. 내가 하는 말이 밤낮 그말이지요. 약혼식·결혼식을 주례해도 왜 남이 하는 것대로 하느냐 말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의사가 죽는 날까지 연구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면 병을 치료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교역자가 죽는 날까지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역시 죽는 시간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결국 컴퓨터 카드화도 연구되어 경신이 되어야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꿈과 용기를 젊은 층의 청년부나 대학부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말씀해 주실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일 하루정도 대화의 시간 마련할터

목사님: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이 몸이 말을 안듣고, 어쨌든 모든 부서는 못 돌아 보더라도 시간을 낼려고 해요. 주일날 배변 설교하면 꿈쩍 못하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에는 교회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한주일에 하루 이상은 꼭 나와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젊은 교역자들이나 젊은 층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요일이 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정확히 요일을 말할 수는 없군요. (*)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

—중생한 성도의 올바른 인생관—

이 양 우 전도사

(충신연구원 1년·새신자부 부지도)

차례

I. 마음의 올바른 관리

- 1) 염려, 조심, 공포 등에 빠지는 것은 중생한 신자에게 죄가 된다
 - 2) 불평과 원망도 역시 성도에게 죄가 된다
 - 3) 질투, 시기, 미움, 원수맺는 것, 모함 등은 성도에게 가장 악한 죄악이 된다
- 「마음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10가지 행동지침

II. 생활의 올바른 관리

-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바로 관리하자
 -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바로 관리하자
- 「지혜로운 시간관리」의 7가지 비결
-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생애를 바로 관리하자
-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을 위한 10가지 행동지침
- 성도의 다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다(엡 2:8).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영광스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옛 사람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좇아 즉 세상의 방법, 마귀의 방법, 육체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무리가 「보이는 교회」(조직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루속히 벗어버리고 주의 친백성으로서 신한 일에 열심히하며(딤후 2:14),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또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하여 새로운 축복의 생애, 감사와 기쁨, 감격과 성공의 생애를 살아 가야 할 중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이 글을 써 보려한다.

「그리스도인의 창조적 삶」 즉 “중생한 성도의 올바른 인생관”이란 제목은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필자는 마음의 올바른 관리, 생활의 올바른 관리로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려한다.

필자의 소원은 이 부족한 글이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중현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울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마음의 올바른 관리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위에서 예로 든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의 두뇌와 마음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관리하며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인줄 믿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창 1:26-27) 인간의 귀한 인격(知, 情, 意)의 좌소인 마음(heart)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고찰해 보려 한다.

1) 염려, 근심, 공포 등에 빠지는 것은 중생한 신자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였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다”(마 6:27-34)고 하시면서 염려와 걱정의 무익함과 해로움을 교훈해 주셨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도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근심과 염려속에 빠진다는 것은, 바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 11:28)고 「영광스런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약속을 불신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걱정, 근심, 공포 등에 빠져 헤메이는 것은 오늘날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이 성경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체험적 신앙고백인 동시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자에게는 절단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만약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불신하고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며, 또 자기 백성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또 근심과 걱정과 빠져 있는 것은 「종성한 생활」을 약속하신(요 10:10)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이고 성도의 모든 생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롬 8:28)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거짓것」으로 바꾸는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우리앞에 당하는 모든 열려 걱정, 근심 공포등의 마음의 짐과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와 「찬양」으로 다 맡겨 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므로 세힘을 얻어(사 40:31)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누려야 할 것이다.

2) 불평과 원망도 역시 성도에게 죄가 된다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대체로 이거주의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질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 40년의 방황을 자초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둘째 원인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의 게으름과 불성실함에 있다.

즉 지도층(윗 사람)은 피지도층(아랫 사람)의 절실한 필요와 선한 요구가 무엇인지, 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순간 순간 잘 살펴서 관용과 사랑 그리고 성실로써 자기의 돌보는 책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앞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엡 6:9), 피지도층(아랫 사람)도 역시 자기의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엡 6:5-8).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살전 5:16-18)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항상」이란 말과 「범사」(모든 일 즉 기쁨 때나 슬픔 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등 모든 일)란 말에 특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 번 세어 보고 나의 무책임한 게으름과 잘못을 회개하며, 오늘날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종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

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만 믿고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의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3) 질투, 시기, 미움, 원수 맺는 것, 모함 등은 성도

에게 가장 악한 죄악이 된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지옥불이 기다린다”고 엄히 경계하셨고(마 5:22) 또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하였다(요일 3:15).

알의 근심과 열려와 공포 및 원망 불평등은 소극적인 인간 마음의 죄라고 한다면, 질투 시기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모함등은 인간 마음의 소산중 가장 악독한 죄악이 된다(약 3:14). 이 악한 마음의 질병을 빨리 「말씀」과 「기도」로 주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정 교회와 민족에까지 큰 피해를 미치게 되며, 영육에 큰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고 말 것이다.

그 역사적 실패를 우리는 구약에서 「가인」과 「하만」 그리고 「사울왕」에게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불행한 유대인들을 통해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미움과 시기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섭고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성경과 현대 모든 심리학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고전 3:16, 6:19, 잠 14:30, 아가 8:6)

그리고 이러한 미움, 시기, 질투, 원수맺는 것과 모함등의 주 원인은 자기의 약함과 교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백합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악한 마음의 질병을 주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야 하겠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원수맺는 모든 마음의 매듭들을 한시바삐 풀어 버리고, 서로 겸손하여 우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화목하는 놀라운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난중에서도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9)

그러면 이제 「마음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10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낳아 하나님께 자백하고 끊어 버리고 정리하고 떠나므로 참된 회개를 하여 죄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자 (요일 1:9 엠 5:8)

이것이 「영혼의 호흡법」이다.

<둘째>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습관화하자. (입과 표정과 행동으로) (살전 5:16-18)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정에배를 생활화하고 일상생활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또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생활화하자(엡 5:19-21)

· 성경에는 「찬양」과 「기쁨」이란 말이 550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네째> 나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자(로 8:28)

<다섯째> “너희 모든 열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 5:7)라는 성경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여섯째> 항상 죄를 토한 순결하고 깨끗하며 겸손과 은유한 그리스도의 심령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자(마 5:8, 11:29)

<일곱째>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며 사랑하여야 하겠으며 불평과 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심는 삶을 살자(마 5:9)

<여덟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 지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확신을 기르자(마 26:39)

<아홉째> 두 마음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며,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므로 내 마음을 주 앞에 글세게 하자. (약 4:8, 벧전 1:22, 요일 3:19)

<열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영육의 부족함이 없다”(시 23:1)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자.

II. 생활의 올바른 관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진실로 그렇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6일동안 모든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맨 나중에 「자기의 형상」을 따

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참조)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으니 즉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공짜로 즉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것이다.

이같은 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생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3가지로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바로 관리하자

예수님께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 6:21)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올바른 관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이 본분을 잘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의 올바른 관리는 성도의 중요한 인생 관이요, 성공적 삶의 근원이 된다.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평균여섯 귀절마다 한번씩 그리고 우리 주님의 38가지 비유 중 16가지는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 귀한 교훈을 무시하므로 성도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겠다. 이 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초조감과 열려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질에 있어서 성도의 기본적인 책임은 「십일조」이다. 「십일조」란 수입의 1/10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의 표」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면서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성경 귀절은 「십일조」에 관한 성경밖에 없다. (말 3:10-12)

우리 재물의 「십일조」는 최소한의 성도의 헌신적 표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잠 3:9 10, 마 6:21) 「십일조」의 규제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0을 바친 것이 그 시초이며(창 14:17-21) 계속적으로 지켜온 하나님의 불변하신 율례이다. 이 「십일조」에 대해서 예수님도 역시 의(義)와 인(仁)과 신(信)과 함께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다(마 23:23)

나그네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관리하는 「처지기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주앞에 바쳐 전도와 선교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및 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데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아울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요 10:10, 빌 4:19)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여호와 너시」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자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바로 관리하자

물질과 재능에 대한 심일조와 헌신은 많이 강조하지만, 시간의 심일조와 그 귀중성에 대한 역설은 약하며 동시에 시간의 귀중성에 대한 인식도 신 불신을 불문하고 매우 희박한 것은 사실이다.

인생을 70명생이라 불래 잠자는 시간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참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시간은 일생의 절반정도인 35~40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과 교회와 민족에 주신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선용하며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권택요 의무인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고 하였고, “너희가 이 세대를 거알니와 자다가 깬 때가 벌써 되었다”(롬 13:11-14)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앞에 당한 경주들 주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최선으로 잘 수행하고 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관리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독자의 도움을 위해 필자는 「지혜로운 시간관리의 7가지 비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시간을 금이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진리인 것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해야 시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마 22:37-40)

② 시간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골 4:5)
모든 사업가들이 돈을 귀중히 여기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기록해 두듯이 우리도 노트를 꺼내어 매일, 매월, 매년, 일생의 시간표를 자기의 능력을 따라 정확히 기록해 보고 또 낭비하는 시간은 근절해 버리고 최선의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작성하여 충실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보이는 욕망의 달성보다 더 귀중한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창조적 삶을 살 수 있다. (마 6:33)

비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향락과 사치, 방탕과 술취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므로 그 일들로 인해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시간배정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마 16:16)

④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여유있는 시간표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눅 12:40)

늦어질 것에 대비하지 않고 여유없는 시간표를 짜

로 하여 수많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므로 시험에 낙방하며, 조급히 서둘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의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도 신경질을 내거나 조급히 서둘러 말고 법사에 여유와 마음의 침착을 찾아 그 지연되는 시간까지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중요하고 가벼운 일을 잘 배정해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잠 3:13-18)

시간의 조절법에는 자기의 능력이 최고도로 오를 때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시간표를 짜고 또 비능률적인 시간에는 가벼운 일을 배정하므로 최대한으로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합이 성공적 삶의 지름길이 된다.

⑥ 자신에게 자극을 주고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시간적 압박감을 만들어야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빌 3:14)

목표있는 인생과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 인생은 그 결과가 천지차이가 되고 만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므로 하여 또 시간적인 목표를 두므로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목표를 향한 전진을 시작하자.

좋은 아이디어는 5분내에 실천해 보자.

⑦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 말고 과감히 경험과 재능있는 유능한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분담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된다. (출 18:18-22) (행 6:1-6)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서로 도와 가며 살도록 하신다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면 필요한 비용도 넉넉히 채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생애를 바로 관리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말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또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 지는 것은 진리이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이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생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는 이땅에 태어 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광스런 자녀가 된 것이다. (엡 1:3-6)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록한 무리가 된, 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고 모든 재능 우리의 몸과 지위와 전생을 하나님께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성공과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님의 친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 우리의 몸과 지위와 전생을 하나님께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성공과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전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인생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행동지침 10가지」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주안에서 즐겁게 유희하게, 기쁨과 감사와 성실로 사는 삶의 태도이다. (시 118:24).

특히 노동은 즐거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전도서 9:8-10)

<둘째>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義)의병기」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 생활 태도이다. (마 10:39, 롬 6:13)

<세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 태도이다. (시 37:4)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이란 영육의 위상을 버리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네째>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산 믿음의 생활태도이다. (빌 4:13, 시 37:3)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 보는 「미래 지향적」 사고주의자가 되라. (빌 3:13)

과거의 성공에 교만하여져서 오늘의 책임에 게으르지 말고,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절망이나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이 주신 뜻대로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태도를 말한다.

<여섯째> 나의 모든 재물, 재능, 젊음, 지위, 믿음과 전생애는 하나님께서 잠시동안 내게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청지기 의식」에 투철하여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할 것이다. (롬 12:1-2), (골 1:20-22)

<일곱째> 성공의 지름길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힘쓰는 생활태도가 성도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마 22:39, 고전 10:23, 24)

<여덟째> 실패를 넘어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불굴의 믿음이 중요하다. (시 37:7) (롬 8:28)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인생의 싸움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썼던 사람들은 집념이 강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었다.

<아홉째> 집단사고와 의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이다.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지혜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 11:14)

특히 「집단 사고」에 주의할 점은 ㉔ 긍정적 태도와 ㉕ 가능한 큰 아이디어와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케 하고 ㉖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결함, 개량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열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중심된 생활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창조적 삶의 태도인 것이다. (롬 11:36, 12:1-2)

이 모든 것 위에 믿음과 생활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마누엘」의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민족은 가장 비참하게 되고 만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시 33:12)

이제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동시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품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 인생관」을 가지고 주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고, 우리 자신들은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양 그리고 전도의 생활을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록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살전 5:16-18)

「성도의 다짐」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난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존귀와 능력을 돌리며,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여호와 넋시」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모국교회의 힘이 필요

늘 월간충현을 받을 때마다 교역자와 성도가 일체가 되어 잘 믿어 보려고 은혜를 갈망하게 애쓰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모교회 충현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매월 잊지 않고 보내주는 월간 충현을 통해서 대할 때마다 감회가 깊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해외에 나온 지 만 7년이 되어 가니 처음에 나왔을 때의 생각과 많이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만도 교회가 200여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현재 한국인 수가 20만에 육박하고 앞으로 5년내지 10년이면 100만명은 될지 않다고 보아서 여기에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미국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볼 수가 없고 노인들 뿐이어서 경제난에 봉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노인들마저 타계하게 되면 그 교회들은 한국인들이 사든가 말든가 하게되는 실정입니다.

90여년 전에는 백인들이 선교하려 왔고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교포 2세의 신앙지도와 정신지도 등의 교육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국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1백년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도 차원 높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한국인들이 신앙, 정신, 기술, 사회, 정치면에서 지도권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 대판이 공업도시로 유명했는데 그곳의 공업회원(공장주)들의 반 수 이상이 한국인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런 가능성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100년 역사를 가진 일본, 대만과 5,6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활동 발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거나 일본인 이곳의 시장까지도 한국인이 제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아서 이곳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세계 만방에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곳

에서의 교육(신앙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여기서만은 될 수가 없고 국내의 모든 교회가 도와주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충현교회는 해외에 많은 성도들이 나가 활동하고 있는바 충현교회에서 보



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외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해외에 있는 교인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지도 신앙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겠고, 미국 중에서도 특히 로스엔젤레스는 제 2의 서울로 발전함을 주시하시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재미 교인의 신앙지도를 위한 연구의 정책이 뒷받침되어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 두서없이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월간충현을 받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 월간 충현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충현교회에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월간 충현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교국의 소식이 없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해외교우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 해외교우들도 함께 참여하는 월간 충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5,000부를 발간한다니 놀랍습니다.

늘 주안에서 전부하시기를 빕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1978. 9

지 동 방

<이 원고는 월간충현에서 해외교우들을 대상으로 실문에 응답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는 본 교회 서무장사로 일하시다가 1971년 7월 도미하시 현재는 나성빌라델비아 교회(초전일 목사 시무)에 계시다...편집자>

즐거운 교회생활

신 양 중
(어린이 세신자부)

나는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의 성경학교에 입학하였다. 이곳 교회의 이름은 '충현교회'이다. 학교 친구의 전도로 이곳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상당히 커서 멀리서 보아도 우뚝 솟은 교회당 지붕이 보였다. 나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세신자부에 들어갔다.

6학년인 나는 교회의 집사님이신 신 영현 선생님의 반에서 성경을 배우고 찬송가도 배웠다. 참 재미가 있었다.

또 본당에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보았고 여러 목사님의 재미난 성경이야기를 들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매우 재미있게 들렸다. 오늘은 나홀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다.

점심때에는 교회에서 점심밥을 주었다. 비빔밥인데 너무나 맛있었다. 밥을 먹고 간식을 먹었더니 배가 불룩 나왔다. 세신자부실에서 한 영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찬송가 공부를 하며 소화를 시켰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되어서 유년부실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았다. 감명깊은 좋은 영화였다. 교회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은 아직 몰랐었다.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로 끝났지만 앞으로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즐거운 교회생활

김 양 희
(어린이 세신자부)

어머니께서 매일 드시고 구중을 해야 겨우 교회에 옵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이번의 제목은 「즐거운 교회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는 즐거운 교회생활이 아닌 지겨운 교회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학이라서 그런지 잠을 더 자고 또 자주 게을러져서 여름 무더위에 참지 못해 땀까지도 많은 찬 물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교회에 와서 성경공부를 하고 울음, 노래 등 더욱 더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생활을 즐겁게 하리라고 마음 먹습니다. 지금부터나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느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곳인 교회를 지겹다고 생각하다니 앞으로라도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교회생활을 즐겁게 하고 하나 더하여 예수님의 고마움을 알아 매일 매일 기도하고 참된 예배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찬송가 감상⑧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 353, 합 348, 개 335>

김 중 석 전도사
(케이 성가대 지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너무도 잘 알려진 찬송이다. 잘 부르는 찬송을 대할 때도 그 작곡 경위나 의도를 알면 더욱 은혜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서나 잘 부르는 이 찬송을 세살 소개하려고 한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크로스비(Fanny J. Crosby 1820~1915)라는 여자 맹인이다. 생후 6개월도 안되어 실명(失明)한 그녀는 뉴욕 맹인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여덟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38세 때 맹인 음악가 알렉산더와 결혼한 후 40세부터 복음성가를 쓰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예닐곱(여섯, 일곱)편도 썼으며 그녀가 쓴 노래는 8,000수에 달했다 한다. 크로스비는 불시에 주어지는 영감에 의해 시를 쓰곤 했다. (1875년의 일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방에 앉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선하신 일과 심리에 대하여 명상하고 있을 때 문득 이 찬송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다. 가사가 다 되자 이것을 로리(Robert Lowry 1826~1899) 박사에게 보냈다. 작곡자인 로리 박사는 침례교회 목사로서 Hanson 침례교회 목사로 시무한 1860년대부터 찬송가 작사와 작곡을 시작하였다. 1870년대부터는 펜실바니아의 Lewisburg 교회에 시무하면서 모교인 Buchnell 대학에 강좌담당도 하다가 이 곡을 쓴 1875년에는 동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한 말하자면 목회·신학·음악 방면에 두루 활동한 유능한 인물이었다. 이 곡은 출판이 되자마자 날개돋힌 듯 보급되어 수백만 신자들의 기억 속에 파고 들게 되었다고 생키(Ira D. Sanky)는 말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날갯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탄사 형통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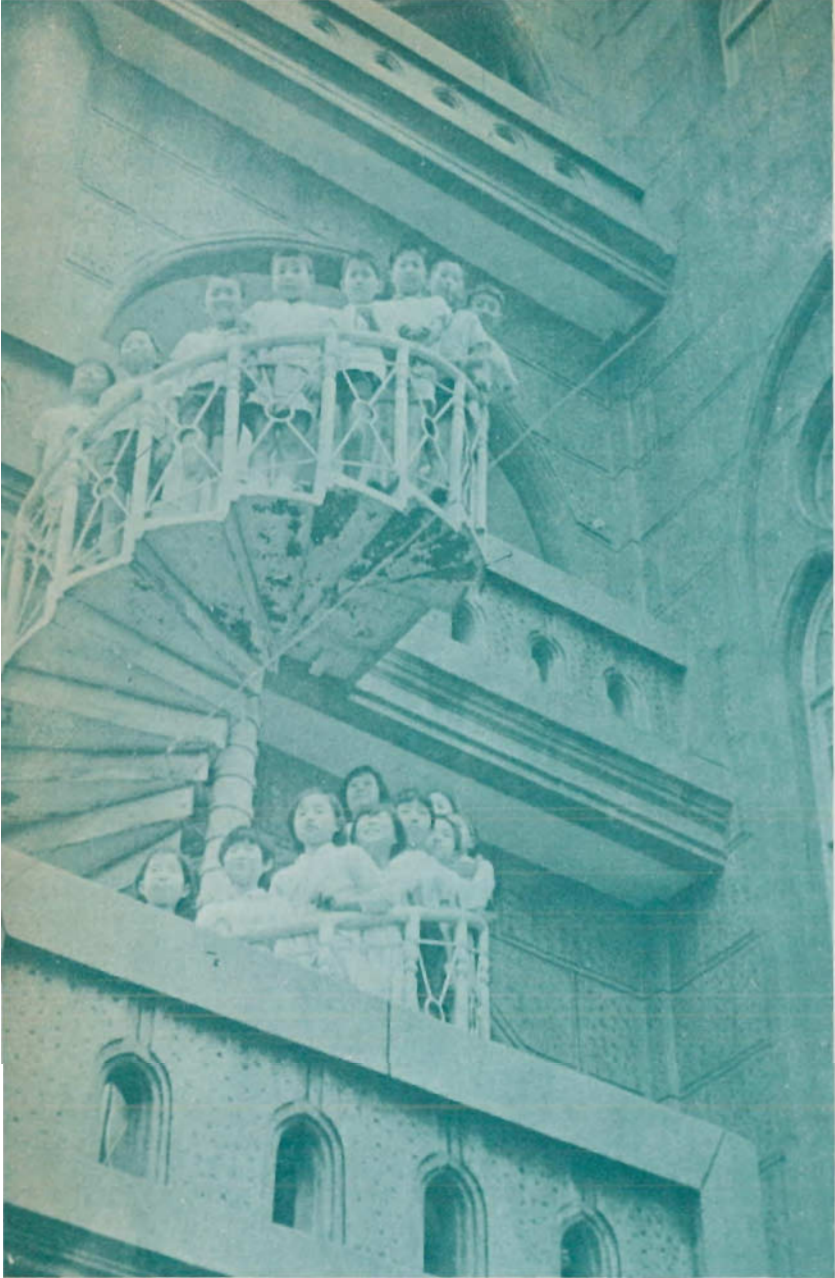
이 찬송은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신앙을 일깨워 준다.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이 없겠으나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단순한 계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찬송은 특히 앞에 큰 일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또 미단 이런 분 뿐만 아니라 인생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 찬송은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에 족하다고 본다.

충현교회 주일 학교

천국 일꾼을 키우자!



고 제 원 집사
최자승(위원장)



주일학교 교육이라면 중현교회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교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의 대명사처럼 되어 왔다. 조금 과장하면 한국 아니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주일학교의 교육 및 체제, 중현교회의 자랑이요 상징이기도 하다. 교사·학생·교재·교육의 삼요소가 조화있게 구성되어 생동감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에 그러하리라.

주일이 되면 시간차를 두어 모임의 물결이 흘러 들어왔다. 나가는 간만(干滿) 현상이 12번이나 일어난다. 12번의 간만이 비감게 일어나는 현상, 또한 중현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리라.

만 4세 이하의 영아들의 교육에 주력하는 영아부, 4세부터 학령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치부, 국민학교 1~3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유년부, 국민학교 4~6학년 소년 소녀들을 위한 초등부, 중학생들을 위한 중등부, 고등학생들의 모임인 고등부, 직업전선에서 기능공으로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모임인 산업전도교육부, 대학생들의 사랑이 뭉쳐 이루어진 대학부, 젊음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청년부, 청년기를 지나 70세전까지의 성도를 위한 장년부, 70세이상의 할아버님 할머니들의 모임인 노년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내하는 새신자부, 이 12부들이 주일 아침 8시 20분부터 3시까지 오가는 장판을 빚게 하는 교회 교육의 장(場)들이다.

부(部)마다 넘쳐흐르는 광경이야말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저마다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소속된 곳인 각 부서에 들어가, 공급해 주는 말씀과 교사들의 인도와 자신들의 그릇들이 침착하게 움직여 기쁨이라는 보배를 담고 떠나기 싫지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내일을 향해 발돋움을 시작한 저 어린 25년의 시간이 흘렀으리라.



중현교회 주일학교는 1953년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해 11월 1일 6명의 학생으로 유년주일학교가 개교되어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기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된다. 당시의 유년주일 학교는 지금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모체가 되어 대상의 범위가 컸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년부 초등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힘입어 체제가 잡혀 가장 원만히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특히 교육 및 행사에 오랜 경험을 토대로 연구되어 효과적이며 은혜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보다 나은

교육의 효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있는 교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고 신중한 평가와 연구를 쉬지 않고 거듭하는 모습은 유·초등부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

충현교회 주일학교 모체담게 주일학교 체계를 계승 및 다른 부에 전승시켜 오늘날의 충현교회 주일학교를 이루어 놓는 데 산파역할을 담당하였고, 그것이 보여준 오늘날의 유·초등부는 균형있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재창조하기도 한다. 여기에 힘입어 초등부의 어린이회는 수동적 교육의 내용을 능동적 실천으로 옮기는 시도의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 면려회 활동의 새로운 장(場)을 제시해 주었다.

교사들간의 코이노니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의 유대관계도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모임 이리라.

1953년 11월 24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도에 큰 관심을 두어 「기독학생회」를 조직하였던 것이 오늘날 중·고등부의 시작이었다. 성경공부로 시작하여 면려회 활동까지 하게 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서려 있을 것이다. 유·초등부까지 수동적 입장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것을 면려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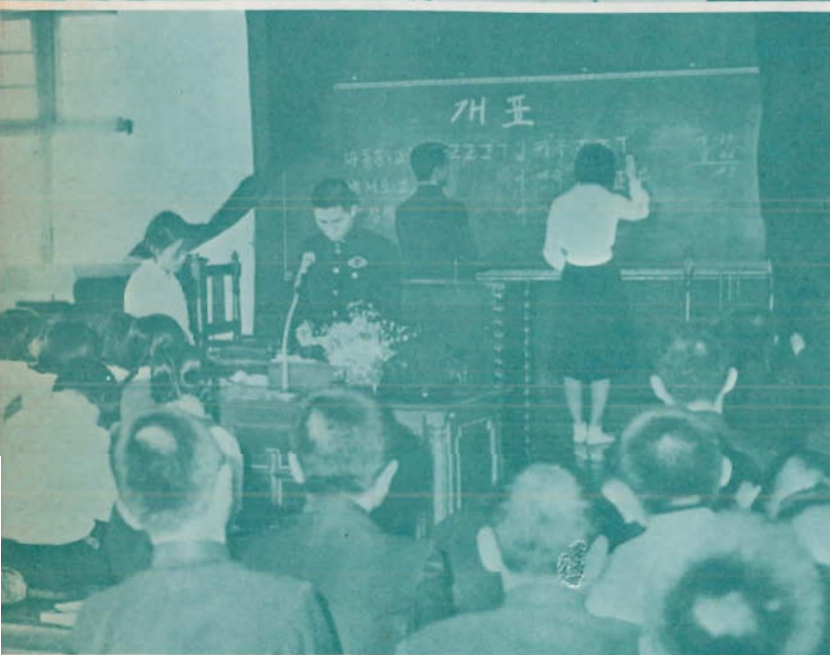


라는 체제의 특성있는 교육과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무엇인가 해보려는 신앙의 열이 불붙는 광경을 중등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수한 상태에서 순종, 모임에 있어서 열의, 교사들의 적극성, 막연한 가운데 찾아 누리는 말씀, 순진한 기도, 중등부의 모습들이다.

4층 다락방에 말씀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 둘 찾아와 잠깐 사이에 채워지는 10시 20분의 그곳, 질서있게 들어와 질서있게 나뉘어 앉아 주신 말씀을 위해 묵상기도하는 남·녀 고등학생들의 모습. 진지하고 경건 해 보인다.

면려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이기에 행사도 많고 모이는 빈도도 잦아지나 할까? 어쨌든 교회내에서 가장 흔히 보여지는 학생들이 고등부 학생들이다.

균형있게 조직된 면려회와 임원들, 체계 잡힌 교사조직과 교사들의 책임감있는 열성,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애타게 울부짖는 주일 저녁예배 후 기도회의 기도소리, 뜻있는 학생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모임,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는 어려움에 도움을 청해 인도 받는 상담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고등부의 전면목이라.



1956년, 15명의 교사와 학생 모여 장년주일학교가 개교되어 성경강해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그 옛날의 유·초등부 주일학교를 동경하여 동심으로 되돌아가 그 옛날에 배우던 방법대로 배우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특별활동도 한다. 사랑의 코이노니야로 개인의 일들과 특히 자녀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광경은 보는 사람마저 흥미롭다. 진지한 성경공부시간, 생명의 만나를 배불리 먹어야만 되겠다 고 판단하여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 말씀의 열매가 익어가는 소리가 맞부딪친다.

1956년, 청년면려회가 조직되어 주일학교 교육의 폭이 넓어졌으며 오늘날 청년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청년회원은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및 활동하여 주일학교 근거리로 주일학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도활동에도 뜨거운 열의와 피를 바쳐 일선에 나서서 봉사하는 광경을 본다. 교사이면서 학생이기도 한 이원적 존재로 학생의 신분에서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행동하려 해서인지, 순종의 젊은이들이 많아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진지하고 건실적인 성경공부 및 토론은 반장 중심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상호간의 어려움을 서로 토의함으로 개선해 나가



고 있다. 모든 면에 젊음을 갖고 열성
껏 충실히 자신을 이끌어 나가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도 가장 원만하다.

1961년 확장되어 나가는 주일학교 교
육을 원활하게 성경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교육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교육연구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각부 주일학교의 사령탑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영력있는, 실력있
는 교사와 주일학교 교과체제 확립과행
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하며 주일학교 전체를 조정·관리·지도
하고 있어 12개 부서가 조직적 체계적
으로 움직이는 것을 돕고 있다.

교사·학생·교재의 교육의 삼요소에 대
한 진지한 연구와 행사 후의 의미있는
평가, 그 내용의 전달, 그로 인해 교육
위원회 하면 딱딱하고 정이 안간다.

교회설립 열둘째, 중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한 지표로 「천국 일꾼을 키우자」
라는 표어를 설정하여 교회의 모든 힘
을 주일학교 교육에 쏟아 주일학교 교
육은 일대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보다 높은 차원과 다양한 방
법으로 교사·학생·가정을 연결하는 교
육과 훈련이 조직화되고 고도화되었다.

1969년, 유년부 유치처에서 독립 운영
을 위해 분리된 유치부는 학령 전의 어
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 주려는
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열성과 보이
지 않는 열성, 천아들·딸·동생으로
생각하여 맡겨 준 생명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백퍼센트 순종하고 있
다. 주일 아침 말씀지도와 시청각 교재
로 인한 율동 및 그림의 표현, 바로 입
체적 교육이 이루어져 신앙의 기초를 확
립하기에 여념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일
오후의 심방은 천진난만한 어린이 일지
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수
있는 사랑이 감도는 일이기도 하다.

청년부에서 분리된 대학부는 자유스러
운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통하여 참 자
유함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순수
하게 나타난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
지 못하여 온전한 인격형성이 불완전한
집단인지라, 순수한데도 불구하고 순수
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주일, 4층 다락방을 찾는 젊은이들은
그들의 작은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
의를 듣고 또 토론함으로 4층 다락방이
온통 진리의 전당으로 되어 버린다. 특
히 소그룹들의 모임은 특성이 있고 IX-
QUS활동으로 학원복음화와 코이노니아
가 이루어져 대학가에 머지 않은 장래
에 밝은 빛이 비쳐지리라 본다.





늘어나는 신입생에 대한 관심을 위한 새신자부는 새로 나온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안내자로, 준비된 교재로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분위기에서, 사랑을 맛볼 수 있어, 사랑의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큰 교회에 갖는 코이노니아의 부재와 특히 새신자에 대한 성도 교제를 새신자부 교육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단기간동안 진리의 말씀의 맛을 알려 주는 움직임이 있는 부서이다.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므로 사랑의 화답을 얻는 사랑이 넘치는 부서이다.

1974년, 70세이상의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자신의 신앙준비와 자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교육하기 위한 노년부는 저 옛날 유치부의 주일학교 분위기처럼 노년으로 인한 천진성이 잠재되어 있어 상호간에 부담없이 주고받는 대화와 수많은 경험들이 서려있는 이야기 속에서 그 옛날을 회상하게 하여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통한 기쁨과 친교를 통한 만족감이 주일을 뜻있게 또한 고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리라.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보시기를 즐겨하시는 생활이 젊은이들을 인도하고 있다.

1975년, 영아교육에 주력하기 위해 개교된 영아부는 인식이 고취되어 3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성향을 가져왔다. 매주 예배마다 영아부실을 메우는 영아와 학부모, 한마디로 신앙의 산실인 것이다. 무더운 여름에도 훈훈한 열기가 눈을 못 뜨게 할 정도가 되어도 교육의 집념하에 영아부실을 찾는 학부모들의 열정과 성의는 가히 영아부 교육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나마 표현해 주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영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목요일에는 목요상담을 통해 가정생활과 영아 양육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및 가정까지 연결하여 복합된 산 교육의 장(場)으로 발전되고 있다.

1976년 7월 직업 전선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공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개교된 산업전도교육부는 중현교회 주일학교 제12번째, 마지막 개교된 부서이다. 직장인들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질적인 모임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향해 접근하는 움직임은 어느부서에서도 단결되기 어려운 단결을 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과 행사





에 대한 열의와 순종의 자세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만끽케 해 준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말씀 듣고 토론 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충현교회 주일학교는 유년부에서 12 번째의 산업전도교육부가 개교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체계있게 자라났다. 교육위원회 산하에 세분화된 12 체계의 공통분모는 「천국 일꾼을 키우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국을 위한 주일학교 육성이 아니라 전세계를 위한 주일학교 육성과 천국일꾼을 키우는 데 온 정성을 다 쏟을 때가 왔다.

명년부터는 충현교회 주일학교가 선교주일학교와 새가정주일학교의 2부가 더 늘어 14개 부서로 확장되어 독특한 주교교육과 세계를 향한 주일학교를 육성코자 한다. 이렇게 되면 충현교회 주일학교는 명실상부한 세계를 향한 「천국일꾼을 키우는 진리의 전당」이 될 것이다. (*)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8월 중 구입한 도서

1. 참고서류
북한총감 :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1059p.
2. 주석류
칼빈주석 사도행전 I : 존 칼빈지, 신교출판사, 1978.
3. 변증론
1) 구원의 길 : 라이스 존저, 유평자역, 생명의 말씀사, 1978.
2)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월취만 지저, 권혁봉역, 생명의 말씀사, 1978.
4. 신약
주님의 성만찬 : 터언벌 텔프저, 문석호역, 생명의 말씀사, 1978.
5. 조직신학
거듭난 자의 생활 : 토저 에이든 W저, 한상국역, 생명의 말씀사, 1978.
6. 기독교윤리
그리스도와 같이 : 머리 앤드류저, 문석호역, 생명의 말씀사, 1978.
7. 묵회학
1) 성령충만한 여인 : 라헤이 베를리저, 양은순역, 생명의 말씀사, 1978.
2) 현대목회학 신강 : 김득용저, 종신대학출판부 1978
8. 교육학
1) 세계 지도여성들의 자녀교육 : 라이트·린다 테니저, 김의자역, 보이스사, 1978.
2) 크리스찬의 자녀교육 : 머리 앤드류저, 보이스사, 1978.

도서실 소식

① 도서대출증 정리

본 도서실에서는 신속한 도서실 운영을 위해 1978년 이전에 발행된 도서대출증을 정리 재발행하고 있다. 1978년 이전 도서 대출증을 소지 하고 계신 분들은 도서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발급 받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도서대출증 없이는 도서대출이 불가하니 도서대출을 요할 시에는 꼭 대출증을 지참하여 오시기를 바라며 단 도서대출은 본 교회에 등록된 교사에 한함.

② 도서선정 위원회 발족계획

본 도서실에서는 보다 좋은 양서를 선택 성도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연내에 도서선정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한다. 도서실에서 구입하는 모든 도서는 이 위원회를 통하여 구입되며 도서실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안건들이 이 위원회에서 논의, 당회에 상신케 된다.

도서실 안내

도서열람시간 : 평일 : 오전 10시—오후 6시
 주일 : 오전 8시 30분—저녁예배 15분 전까지
도서대출 : 평일 및 주일 폐관 1시간전까지. 교사는 1인 1권, 교역자는 1인 2권까지 대출 가함.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
...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없는 고백입니다. 그러...
...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
...양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서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같은 캠페인을 벌...
...입니다. —「월간충현」...

◇ 추천하고 싶은 책 ◇

한나 휘틀스미스 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활의 비결

보이스사

미국에서 300만부 이상 팔렸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활의 비결」(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이란 이 책은 한나 휘틀스미스 여사가 이 책을 통하여 수백만의 미국 독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현실을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가졌다.

그가 어떻게 불운의 그늘에서 벗어나 축복의 인생을 찾을 수 있었는가를 이 책을 통하여 보여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영원하신 진리 위에 세워진 「만세반석의 책」이라 하겠다.

영적 천재나 세상을 무시하는 성직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수고하며, 하나님을 동경하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으므로 평이한 말로 되어 있으며 알기 어려운 신학적 문장은 없다. 이 책은 보통 생활 경험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실명으로 그 비결을 표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처럼 평이하고 알기 쉬운 글이다. 일상의 의무, 행위, 결정을 다룬 실체적인 책이며 또한 매우 인격적이어서 머리는 구름 위에 두고 발을 흙 속에 넣는 공상적인 이론도 아니다. 저자가 지식과 감정을 균형있게 조화시켰기 때문에 신앙문제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상하지 않고, 이기적인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헌신적 생활을 하도록 인도한다.

끝으로 인문주의와 세대주의의 만연 속에 기계문명의 노예가 되며 황금만능 앞에 살면서도 오히려 교육과 공포에 떨며 불신 풍조가 가득한 평야와 같은 오늘날 특히 패배의 순수성을 가진 젊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 석 원 전도사
(조동부 지도)

빛

조 현 명 장로

(당회원·출판위원장)

하나님께서 말씀(명령)으로 천지만물과 인류를 창조 하심에 있어서 제 1일에 빛을 만드셨다.

성경의 빛은 어둠에 상대한 빛, 낮의 빛, 하늘에서 비치는 빛, 번개 빛 등을 의미한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쓰여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와 능력, 위로, 하나님의 교제의 뜻을 포함하며 육체적 생명과 같은 뜻의 말로 썼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왕조의 상징으로서의 등불이란 말이 표시 되었다.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쫓는 자에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풀성으로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빛으로 계신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빛이시며 죄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신 광명의 빛이시다. 새아침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에 넘친 생애를 주셨다.

빛은 선악을 분별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를 발견하고 주의 참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거리낌 없는 생활을 하여 인격, 이상, 습관의 변화를 가져와 사랑의 생활을 하게 이르며 하늘 나라의 빛속에 사는 자로 기쁨이 충만하다.

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순결, 사랑, 진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빛의 중요한 행사는 나타나는 일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할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타내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다. 빛은 우리들의 재산이요, 원근(遠近)에 있다. 참빛은 죄로 인한 심령을 구하며, 믿음·소망·사랑이 넘치게 하며, 한 가정이 밝아지고 국가가 밝아지고 우리 민족이 밝아진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구름 기둥과 빛을 비추어 주는 불기둥은 이스라엘백성을 광야에서 구출해 주셨다. 빛은 어둠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인간의 부정과 죽음의 밤을 정복한다. 빛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 진리·선·생명·승리·영원한 길을 얻게 된다.

우리 인간은 등잔만 있으면 빛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좋은 등잔이 준비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들의 등잔이 크고 좋으나 기름이 떨어지가는 등잔이 아닌가 반성해야 하겠다. 기름은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셨다. 우리들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어둠은 영원치 않다.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말하였다. 허무한 것도 때가 있으며 한정이 있는 것이다. 이 허무한 때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두운 현실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어둠 후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천지창조에 있어 3일간의 분리작업을 끝내신 하나님께서는 제 4일에 구성작업으로 천체(天體)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천지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며 질서로써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태양에 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태양이시다. 이는 사람을 비롯하여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은 태양의 빛과 열로써 유지되고 있음에 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이란 태양이나 고열(高熱)의 물질에서 나와 공간을 전파하는 전자파(電磁波)를 말하며, 그의 종류로는 파장(波長)에 따라 우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광선, 적외선, 전파 등이 있다. 또 빛깔로서 사람의 눈에 밝게 느낄 수 있는 복사선(輻射線)을 광선 또는 가시광선(可視光線)이라 하며, 단색광(單色光)으로서는 파장이 긴 것으로부터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남빛 보라빛 등의 색깔(色感)을 준다.

우리들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체에서 나온 빛을 눈으로 감각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는 것도 태양에서 풍부하게 내려 보내지는 빛이 지구상의 생물이나 지구 자신에 흡수되고 그에너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구로부터의 평균거리 1억 4,864만km(9천 290만마일) 상거(相距)한 발광체(發光體)인 태양은 그 주위를 원형(圓形)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 아홉 개의 혹성(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토성)으로 된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별에 불과하다. 혹성들은 태양의 큰 중력에 의하여 그들이 궤도에 머물고 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質量)의 99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그 질량은 지구의 33만배이고 체적(體積)은 130만배나 된다. 태양 불꽃이 약동해 나오는 광구(光球; 태양의 둥글고 뾰족거리리는 표면)는 온도가 섭씨 6,000도이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섭씨 1,380만도로 계산된다.

태양은 사람의 눈으로 표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다. 모든 다른 별들은 인간의 제일 좋은 망원경에도 빛의 점으로 나타난다.

태양의 밝기는 대단한 것으로 바로 머리 위에서 태양이 비칠 때의 조도(照度; 單位面積當 照射光束으로서 被照面의 밝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單位는 룩스)는 10만 룩스(Lux) 이상이다. 이것은 1미터 앞에 10만 촛(燭)의 등불을 놓았을 때의 밝기와 같으며 다른 모든 인공적인 빛이나 천체의 빛의 세기보다 훨씬 밝은 것이다. 예컨대 이것을 만월(滿月)일 때의 달의 밝기에 50만배에 가깝다. 이러한 값에서 이루어 계산하여 보전대 태양 자체의 밝기를 측광으로 표시한다면 3×10^{27} 이라는 막대한 큰 값이 된다.

주택, 사무소, 영업소, 병원, 공장 등에 모두 표준 조도가 정해 있으나 우리 나라 보통 가정의 조도는 20 룩스 정도이며, 지하철 전동차의 그 밝은 조명이 400~300룩스인 것이다.

해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에게 그 케도를 주셨으며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며 그의 말씀으로 후퇴 또는 정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에루살렘의 축복, 가운데는 태양이 필요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들이 빛나 있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주의 계명을 지켜 눈부신 빛의 초점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의 밤을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

중공 기행문

특이한 신혼여행

나는 부활절 다음날 나의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중국 본토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며칠 전에 결혼을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신혼여행이었다. 우리는 두 권의 개편 신약성경을 가지고 떠났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우리는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려 했으나 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도시에 머물렀다. 첫날밤 우리는 친척을 방문했다. 호텔로 돌아올 때 우리는 승객용 세바퀴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다. 우리가 탔을 때 돈을 내고 운전사는 우리에게 티켓을 주었다. 그런데 목적지 에까지 왔을 때는 그는 우리에게 티켓을 돌려달라고했

다. 그는 그것을 탄 승객에게 또 팔모양이다.

나는 그 자전거 운전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당신은 당신과 우리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 그는 아무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설명하였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약성경 한 권을 그에게 주니, 그것을 받기를 주저하였다.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호텔에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드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가서 어린이들의 노는 것을 보았다. 몇명이 카드놀이를 하는데가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진화하여 왔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하여서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할 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우리는 성경 한권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읽으라고 하였다.

우리가 호텔로 돌아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한 경찰관이 우리들에게 와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주었느냐고 물기에 그렇다고 하니 우리들을 버스에서 내려서 경찰서로 연행하여 갔다. 거기에 가 보니 어린이들도 거기서 심문을 받고 있었다. 그 어린이들은 우리들이 마치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다 봤다. 어린이들이 다 나간 후에 우리들에게도 심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주소, 성명을 묻고, 직업을 묻고 홍콩에서 여기 올 때 이런 책을 몇권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미신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우리를 따로 따로 갈라 놓고 심문을 하였다. 끝까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풀어 놔 주었다.

나의 아내에게 심문한 사람은 말하기를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매우 상냥하였으며 친절하였다. 우리들이 떠날 때는 호텔로 가는 길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으며, 그리고 이 곳을 떠나기 전에 다시 와서 책을 찾아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 성경을 찾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 성경은 경찰서에 있다. 그 책을 그들이 읽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해의복음선교회 제공〉

무더위 속에 넘치는 은혜가

이 혜 봉

(초등부 교사)

초등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는 7월 24~27일까지 학생 300여명 교사 60여명이 참석 첫날부터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며 시작되었다. 나는 초등부 교사로 출석한 지 2주만에 성경학교를 맞이했기에 조심스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내 나름대로 이번 여름은 작으로 단단히 굳혔다. 예전과 같이 교사이기에 참석하는 의무감(?) 비슷한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맘을 홀리기를 원했다.

그래 그랬는지 첫날부터 몇십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염이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이점에 있어서도 나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날 내 일기에는 내 생애 최고의 더위라고 기록되어있다. 그 무서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과 어린이들은 그렇듯 열심일 수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긴 분반공부 시간을 할애받은 담임 선생님들은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겠다는 결심으로 더위를 잊은 듯 했고 그 수준급 개구장이(?)들도 떠들썩한 좁은 공간을 떠나서 인지 땅과 먼지로 범벅된 얼굴에 두눈을 진지하게 선생님께 주시했고 그들의 질문은 성실했고 때론 심각하기조차 했다.

나는 이번 성경학교에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열심과 충성에 큰 은혜를 받았다. 진정 "이 소자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4)"는 말씀이 응하는 것 같았다. 중간중간 진행과 율동을 맡은 나는 중도에 쉴 수도 있지만 담임 교사들은 계속 어린이들과 같이 맘을 홀리며 선풍기 1대도 틀지 않는 초등부실(그나마 저녁엔 해가 든다)에서 어린 생명들을 돌보며 또 집이 먼 어린이들을 위해 주머니를 털며 자신의 맘을 닦을 겨를 없이 어린이들의 땀새나는 얼굴을 닦아 주는 교사들의 모습은 가히 헌신적이어서 반을 말지 않은 나는 담임교사들 배하기가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정도였다.

성경학교 이틀째 되는 날은 온통 기억과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 것처럼 더웠다. 열대 지방 사람들이 단명하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하는 때였다. 찬송 한곡 부르려면 온 몸이 장마가 진다. 얼굴은 작은 폭포수 같다.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그 물은 눈으로 입으로 들어와 시야가 흐려지고 입안이 찻할때 때때로 찬송이 중단되곤 하였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 얼굴에 흐르는 것이 뭘지 알아요? 의외의 질문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지며 제각기 대답한다. 땀이요! 세숫물이요! 그 어린이 눈엔 내 모습이 세수하고 닦지 않은 것처럼 비친 모양이다. 다시 질문한다. 이런 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혜가 동원된다. "구슬같은 땀방울이요" 자신있게들 합창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것은 너무 예쁘고 점잖은 표현

이다. "피땀이요" 기가막힌 대답이다. 어이없어 잠시 있으려니 정답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쪽저쪽에서 합창을 한다. 문득 예수님의 갯세마네 동산 기도가 생각났다. "오, 주님과 비교하다니 가당치 않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입속에 들어온 점점한 액체를 꿀꺽 삼켰다. "다 같이 손수건을 꺼내서 맘을 닦으시다" 다시 율동을 진행했다. 입에선 찬송이 내 머리에선 기도가 흐른다.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주를 위해 맘을 홀리게 뭘을 감사합니다"

지칠줄 모르는 어린이들의 활력이 쳐지려는 나를 붙잡는다.땀 땀 땀 땀 땀 소리가 즐거우게 퍼질 때 손뼉아서 기다리던 성경학교 열렸다. 그래, 손뼉아서 기다렸다. 주님을 위해 맘을 홀리기로.....땀이 흐르려니 하고 살이 따끈따끈 더위도 한때 더운 빌립 속에서 복음일수꾼이 되기를 꿈꾸던 시절을 회상했다.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의 복음 사역을 생각하면 이정도쯤이야라는 각도로 사고를 바꾸어 나갔다.

더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지자 날씨는 과히 전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부터 나의 시야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 담임교사들, 보조교사들의 충성이 점점 크게 부각되어 왔다. 턱이 붓고 입안이 터지는 것이 비단 나만의 자연현상이었겠는가! 시간의 진행과 율동을 맡았던 나는 다른 교사들보다 얼마나 여유 있고 한가한가 하는 기색이 들었다. 그래서 더 정성껏 진리의 복음이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설교자의 심정으로 찬송을 부르며 복음전달의 한 수단으로 한동작 한동작 율동을 이어나갔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찬송의 확신을 주셨듯이 이들 어린 심령들에게도 같은 역사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초등부 성경학교는 은혜 중에 끝났다. 그러나 성경학교는 끝난게 아니다. 다시 겨울로 내년 여름으로 이어진다. 이번의 나태와 게으름을 반성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올 겨울을 계획한다. 동장군의 매서운 도전도 휘몰아치는 눈발도 작아한다. 그러나, 그러나 추위가 성령의 역사를 감할 수 있겠는가!

금번의 더위가 나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었지만 이번 더위에 받은 은혜는 더 크고 깊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는 다시 준비한다. 그리고 기대한다. 어린이들 가슴에 일어날 성령의 불길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49:5-15

세상 부자와 성도의 종국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신자가 세상 부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죄악을 범하는 무리가 일시적으로 득세하여 공의가 무시를 당하고 의인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신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요 자기들의 치부함을 자궁하는 자들입니다. 재물과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고 뽐내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 하나도 구원할 수 없으며 형제가 병들어 죽을 때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푼의 속전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범죄한 죄의 값을 그 속죄의 댓가를 능히 지불해 줄 자는 인간들 중에는 영원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속죄부 교리는 어리석기 그지없다 하겠습니까. 또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자들도 역시 자기자신도 죽어야 하고 또 죽은 후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에 “저가 브리르다 지혜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마는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시에도 말하기를 공자도 죽어 티끌이 되고 공자의 원수 도척도 그렇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무제가 승로반으로써 이슬을 받아먹어 오래 살아 보려던 것이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였던 것은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자기만은 영영히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니 참으로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존귀한데 일시적으로 처하나 실상은 멸망하는 짐승에 비교하여 나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생활이 불결하기가 짐승과 같고 그의 사후에 소망 없는 것이 역시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바로 눈앞에서 불의한 권세자, 돈 있는 자가 죽어서 넘어지는 것을 흔히 바라보면서도 그 악을 또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 악인의 부귀를 부러워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인생들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기탄없이 행하는 자, 의인을 죽이려고 모한 계획을 세우고,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의 형제가 망하게 될 때에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면할 길이 없으므로 무지한 짐승처럼 가치없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그 때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필경 그것은 정직한 자들의 차지가 되고 마

는데 그 때에 악인과 미련한 자와 악인의 앞잡이들은 밤이 지나가고 어두움이 끝나면 음부에 들어가고,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곧 믿음으로 살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 내 영혼은 음부의 권세가 손 못대이는 참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을 밝히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열 때에 내 영혼 들어가겠네” 신자는 세상 부자를 부러워할 것이 없고 그 앞잡이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시 50:1-6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이로다』

세상에는 재판장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재판합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력에 눌리우고 뇌물에 눈이 어둡기도 합니다. 또 잘 알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고, 다 이루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산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므로 그곳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백하시고 거기서 만민을 위한 빛을 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백성을 경성케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며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창 19:16-20).

세제만민을 다 불러모으라 특별히 내게 제사를 드리는 내 백성을 모으라고 하시면서 그는 친히 재판장이시라고 하십니다.

시 50:7-13

형식적 예배론 하나님 앞에 뜻섭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배서원을 갚으며』

전능하신 대 심판장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 심판의 논고에 주의하여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부요하다 꼭 너희 재물이 필요하진 않다 내가 네 집의 수소가 수염소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주를 다 내가 지었고 우주의 만물이 다 내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것이다. 네가 내것을 일시 위임받아 있는 것뿐이다. 내가 네것을 꼭 필요할 것이 무엇이겠나 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가령 주린다고 할지라도 네것을 먹지로 요구하겠느냐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형식적 제사도 드러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이성근 목사—

부산, 남부민중앙교회로

많은 것 배우고 떠나

…그동안 출판위원회 지도, 새신자부(어린이·장년) 지도, 월간총현의 주간으로 수고하시던 이성근 목사님이 지난 8월 31일, 부산(남부민중앙교회)으로 떠나셨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모양 저모양으로 수고하시던 목사님을 떠나 보내며 바쁜 시간이지만 잠깐 월간총현 간사들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을 월간총현 편집국장 이 형수 집사가 정리하여 교우들에게 소개한다. …<편집자>…

질문/목사님께서 총현교회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작년 4월 19일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사하였지요. 그러니까 만 1년 4개월이 됩니다.

질문/이제 목사님이 가지게 되는 부산의 남부민중앙교회와 가지게 된 동기들을 좀 알려 주십시오.

답/75년도에 부산 남부민중앙교회에서 안식년 제도를 채택했어요. 마침 그때가 그 교회 당회장 장 경두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렇지만 안식년을 지킬래도 강단을 지켜 줄 사람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때 나는 교회를 맡지 않고 원고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만 지켜 달라고 요청이 와서 1년을 남부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있으면서 교회도 상당히 부흥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다 이번에 장 경두 목사님이 서울의 성도교회로 오시게 결정이 되니까 그 후임에 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부민중앙교회의 현황은 그곳에서 온 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에배 회집인원이 550~600명 모이고 교회당의 규모나 숫적인 면에서 부산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질문/그동안 계시면서 어려운 일이나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을 텐데요……이곳에 계시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나쁜 점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내가 맡은 분야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새신자부를 가르치는데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가르쳤고 또 새신자부 수료한 사람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 멀리 이사를 가도 나오고 하는 점이 새신자부에서 일하면서 가진 보람이었고 출판위원회에서는 내가 일한 것보다는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요즈음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쪽에 가야 할 교회 문제가 한 일년 후에만 있었으면 좋았겠다고요. (웃음) 일년만 더 있으면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현교회 교역자님들과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특히 김 창원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목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출판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대해 총현교회가 이런 점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글쎄……교회가 너무 크니까 세밀한 부분을 잘 모르겠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외에 교회 표어인 「천국일꾼을 키우자」라고 할 때 우선 교역자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훈련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일반 학생 12부 주일학교의 피교육자를 위해서는 좀 더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의 형편은 행사 위주가 되고 있는데 소위 소모성 지출이 많은데 그러니까 교제보다는 보조자료에 돈이 더 들어가는 형편이지요. 보다 근원적인 교제 교과과정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보다 근원적인 교제·교과과정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겠다고 소신을 이야기하는 이성근 목사.)

질문/그동안 월간총현 주간을 맡으셔서 계속 권두언을 써 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월간총현에 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답/그동안 잘 했어요. 자립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몇부를 더 찍어서 시·대·서·적(기독교)에 배포하고 그 다음달것이 나오면 또 배포하고 회수하면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용도 교회소식 위주에서 교육·훈련 위주로 평신도를 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은 기독교 잡지들이 논문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데 월간총현에서는 그런 점을 탈피하여 월간총현의 특색을 살리면서 하면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지금 월간총현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안 주면 와서 찾아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다 좀 더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8월 중 결혼)

• 조성실양/조천일 목사 장녀, 15일
기독교배화사회관

위로드립니다(8월 중 별세)

• 김남순씨/도봉 ②구, 82세, 26일 별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 준비에 난관의 문제였던 성전부지가 다 풀리어 머지 않아 설계도의 완성과 함께 가급적이면 금년에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2. 해외복음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분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복된 땅 이북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해 후원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상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 구역장 노트 ② ■

임종과 장례를 돕는 길(3)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사람이 운명한 다음 입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1. 수의 준비

수의는 장의사에 부탁하여 기성품을 사용하든지 집에서 잠을 사다가 만들든지 어느편을 택해도 무방하다. 공연히 쓸데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꼭 만들어야만 한대든지 잠은 무엇으로야 한다는 등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만 한다. 또 모처럼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하여는 좋다는 말로만 할 것이요, 다른 말은 하지 않도록 구역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 수의를 만들 때는 그 형편을 살피서 교회 안에 누가 그런 봉사를 하는지 불려다가 그 일을 맡겨 주도록 추천할 것이다.

2. 입관 시간

숨을 거두어 꼭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입관할 수 있는 것이다.

가급적 사람들의 내왕이 드문 아침 일찍 오후에 할 경우에는 조객들이 퇴근하여 문상을 것을 고려해서 적당한 시간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입관작업

유해를 방안에 적당한 위치에 내어 놓고 유족들이 둘러선 가운데 집례자의 지도로 시작된다. 작업이 시작될 무렵 유족중 한두 사람만 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의를 입혀 놓고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것이다.

입관작업은 장의사에서 맡아 하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이 직접하기도 한다. 교우들은 대개 교역자들이 직접 관여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때는 구역장과 권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항상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과 소홀히하거나 급하게 서둘러서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관속에 금품이나 의류 그 밖에 성경책을 넣는 일은 금해야 한다.

4. 입관예배

입관예배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할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집례자는 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책을 상주에게 전달하면서 권면하는 순서를 가지면 더욱 뜻이 있게 되고 유해 앞에 배례하는 일이나 분향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입관예배를 마치면서 발인예배 시간을 광고할 것과 몇가지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구역공과

<10월분①>

창세기 공부

제11과

두 국민

본문 말씀/창세기 25, 27장

읽을 말씀/창세기 25 :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창25 : 23)

11과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일과 열심히 있는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것과 나그네생활로서 그의 말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복중에서 선택받은 야곱

40세나 되어 장가는 이삭은 아기를 원했으나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태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태속에 있는 두 아기는 태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근심스럽게 여긴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후에 에서의 후손(에돔)이 야곱의 후손(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할 것을 예언하였거니와(삼하 8 : 13)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나서 장자가 된 에서는 의모도 장대하였고 성격도 썩어지고 남자다웠던 것 같습니다(창 25 : 27).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대조적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가르쳐 줍니다(롬 9 : 10-13).

우리의 구원도 전장도 재물을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줄 착각하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무요,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의무를 하는 자에게 약속의 복을 은혜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 복이 됩니다(약 1 : 17).

2. 영적인 분별력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야곱은 이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신성한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어 “네 씨르 말미암아 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 22 : 18)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도 계승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믿고 사모했으나 장자인 에서는 욕에 속한 것에 치우친 나머지 신성한 것을 경홀히 취급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서에게는 비극이요, 야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현실에만 매인 사람이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일 수 없었되 그러나 영원히 존속하고 생사복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시장하다고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여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이것을 샀습니다. 실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창 25 : 33-34, 27 : 25-29).

지금도 현실문제와 땅앓문제 때문에 신성한 것, 영원한 것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성수주일 못하고 명이나 권세 때문에 교회 봉사 제대로 못하고 사치와 허영과 열락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모두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신성한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3. 에서와 야곱의 결혼(종족 성별)

이삭과 야곱은 다 자기 민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였으나 에서는 헷여인을 아내로 맞아 경건하게 살려나 리브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창27 : 46).

이스라엘 초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잡혼으로 성스러운 자와 속된 자가 혼합하여 살면 장차 축복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같은 친척 아래에서 살면 곧 종교적인 혼란을 가져와 무지와 어둠에 싸여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천막 밖에 있는 악도 무서운데 잡혼을 하므로 악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민은 종족적으로 성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민 25 : 1-8, 신7 : 1-4, 느13 : 23-27).

물론 이 종족 성별은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배우자나 동역자 선택은 인물이나 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토 의

1. 다음 인물의 성격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① 아브라함과 롯(창 12 : 1-13)

② 야곱과 에서(창 26 : 34, 27 : 41)

2. 종족 성별에 대한 목적을 말하시오(막 4 : 21, 22)

구역공과

<10월분②>

창세기 공부

제12과

이스라엘이 된 야곱

본문 말씀/창세기 28장~32장

읽을 말씀/창세기 32:26-29

『그 사람이 가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르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 32:26-28).

1. 베델의 축복(창28:10-22)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형의 미움을 사 망명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지시를 따라 밧단아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운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하늘을 이불삼아 들에서 잠을 잡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여 외로와진 야곱을 만나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재미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로와진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러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시 146:9). 그러므로 성도가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은혜받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축복의 불변성을 뜻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을 떠났지만 축복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 축복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실한 성도들은 아직 받지 못한 축복까지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고난을 받되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히11:13-16). 우리의 소망도 그래야 합니다. 약속된 장래의

소망은 도외시키고 현실에만 매이는 천박한 신앙생활을 버리어야 합니다(롬 8:18-25).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 밧단아람에서의 축복(창 29장~31장)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시 146:5). 여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베델에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밧단아람으로 성실히 그리고 풍성히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시어 그 곳에서 20년 동안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12 아들과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창 28:14, 15).

야곱은 자기의 허물로 실패자와 같은 망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한 대로 야곱의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어서 레아를 아내로 주고 품삯을 열번씩이나 바꿨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롬 8:28).

3. 이스라엘이 된 야곱

망명생활 중에서 축복받은 야곱은 많은 자녀들과 재산(우양)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의 형 에서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하인을 보내어 에서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미 에서는 알고 400인의 군인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은 최대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양복강 건너로 보내놓고 필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배워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이기어야 하겠습니다.

- 야곱은 홀로 고독한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신자는 고독한 환경에서 기도합니다(고후 12:7, 8)
- 야곱은 선물을 보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인간의 수단이 아니요, 인간으로 의무를 다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 야곱은 싸우듯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성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간절한 기도가 더 요구됩니다(눅 18:1-8).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도 그의 사랑을 의지한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입니다.

교회 설립 25주년 예배

—기념 사업으로 표창도—

교회설립 25주년(설립일 1953. 9.6)을 맞아 9월 3일 대예배시간 2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또한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준비위원회(위원장: 송순일 장로)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중현선교대회를 가졌고 근속자 표창, 음악예배, 성경암송대회, 웅변대회 등을 가지며 교회설립 25주년을 기념했다.

또한 이날 3부 예배시간에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년, 20년, 25년 근속 교역자 장로 권사 교사 성가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지난 9월 3일 주일 3부예배시에 실시하였다.

이번 포상은 근속 10년, 20년, 25년에 대한 포상이므로 의의가 크며 각기 말은바 직분에서 쉬지 않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교회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어왔다. 이번의 포상자는 전부 67명인데 이 제도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은 지난 76년부터 실시하여 76년에 18명, 77년에 3명을 포함하여 모두 88명이 되는데 76년, 77년에는 20년 근속 및 봉직 성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한 직분에서 근속만을 대상으로 한데 의의가 있다.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목사 25년 근속 김창인 목사
- ◇ 목사 10년 근속 백성룡 목사
- ◇ 전도사 10년 근속 이두란 전도사
- ◇ 장로 20년 근속 우성원 장로
- ◇ 장로 10년 근속 김기정·윤종순·윤종성·임광식·김장배·전희문·최석주 장로
- ◇ 20년 근속
조현명·김기정 장로, 서상연·박선자 권사
- ◇ 권사 10년 근속
김봉재·김선복·이학주·문정애·박용주·전정숙·최정자·이명자·이재룡·김능복·장문순 권사
- ◇ 교사 10년 근속
이웅선·윤용규·윤명식·김차생 장로, 이희수 권사, 송기홍·손경수·윤광일·장병기·김광선·남선우·이정애·홍풍각 집사, 장철환 선생
- ◇ 성가대 10년 근속
지금산 장로, 정원향·조계진·최순자 권사·이병학·노광현·원웅철·지금봉·김능실·김성신·김화춘·박순봉·어은애·우문희·전인화·조동숙·최봉숙·최영호·하영자·한동숙·한금희·남정애·김영숙·유달선·김영남 집사
- ◇ 직원 10년 근속 이태규 장로
- ◇ 특별포상자 이창업 안수집사

버스구입—매일 기도원 왕복

교회는 지난 8월말 대형버스 1대를 구입했다. 이 버스는 주로 기도원 출입(운행시간은 저녁 7시, 교회 출발 익일 아침 5시 30분 기도원 출발)을 위해 사용된 것인데 그외에도 교회서무부의 승인하에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념음악예배 성대히

이날 저녁에는 대학부, 여성, 제1, 제2성가대가 연합으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발표했다.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 서 본당과 별관까지 북메우고 각 창문과 통로에까지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연주는 1개월여의 연습을 거친 것이었다.

이날 천지창조를 들으며 많은 교인들은 넉넉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초라했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축복과 발전, 부흥을 감사하며 눈물 짓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기도 했다. 이날에 지휘는 김연술 선생(제일성가 지휘) 반주에는 기독교 연합오케스트라가 맡았다.

25주년 기념 성경 암송대회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장

또한 말씀안에 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권하는 의미에서 2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8월 27일 주일에 실시되었다.

총 120여명이 참가 출전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전부 암송한 사람이 11명이었다. 이날의 암송대회는 영아부는 5장 1절~8절까지 암송했으며 유치부는 꽃반은 5장 1절~11절 열매반은 5장 1절~22절, 유년부(1~2학년)은 4장 13절~5장 22절(3학년) 4장 9절~5장 22절, 초등부는 4~5장, 노년부(70세 이상)는 4~5장 중등부 이상은 전서, 후서 전장을 암송했으며 결과 특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장암송—특상자>

임인복(고등부), 허옥순, 한월남, 강선자, 윤명림(산업전도 교육부), 김명실(제이 성가대), 한영식(상계구역, 김연이(대학부 교사), 손동운(중등부 교사), 김태현, 김순실

지도자 이동

당회는 8월29일 정기당회에서 주일학교내의 부지도 이동 및 인사발령을 새로이 했다. 이번 이동중 특이한 것은 중등부 부지도에 남·여 두 교역자가 보완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등부 부지도에는 그동안 초등부 부지도로 수교하시던 김정훈 선생(총신 4년)과 김순숙 선생(총신제학 중)을 초등부 부지도에는 안석렬 선생(총신 연구원 제학 중)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이성근 목사 사임으로 인해공백이 된 월간충현주간을 현청년부 지도교역자인 이준교 전도사를 간행물심의실장에는 전도위원회 지도교역자인 정기성 목사를 각각 임명했다.

제 1 회 하기 권찰수련회 성료

—권찰훈련을 위한 특별집회—

권찰회에서는 금년부터 권찰훈련을 위한 하계 수련회를 갖기로 하여(처음으로 특별집회를 9월 4일~7일간 매일 저녁에 본당에서 장경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가졌다.

권찰의 자질향상과 구역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그동안 매년 격주 훈련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집회훈련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처음 실시한 바 매우 좋았다. 이번에 실시한 훈련과목으로는 예배 모범성경 그룹 공부방법, 성도교제법, 개인전도법 청지기론, 행정 및 심방, 새신자육성법, 신앙의 입장(우리교회 및 우리 교단의 신앙 방향 및 목표)의 8과목이었으며 주제성구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이었다.

추석 성묘 합동예배 실시

교회는 9월 17일 중추절을 맞아 추석성묘 합동예배를 16일 중현동산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무부에서는 대절버스의 좌석예약 신청(1인당 2,000원)을 받아 당일 오전 10시까지 집합, 오전 10시 30

분쯤 출발하여 정오쯤 도착하여 합동예배를 드렸다. 합동예배 후에는 개별적으로 묘소를 돌아 보았고 점심식사를 마친후 3시 30분경 하산하여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질서 있게 돌아왔다.

영아부 3 부예배 실시

주일학교 중 가장 어린 연령층의 영아부(부장 김은호 장로)는 9월 3일부터 주일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다. 개교한 75년부터 부흥과 성장으로 인하여 2부예배를 보지 않았던 안되게 되어 2부예배를 드린 지가 꼭 1년 된 천

시점에서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3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I부 예배는 오전 8시 20분, II부예배는 9시 20분, III부예배는 10시 20분에 각각 드리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교사들의 피곤함을 생 각해 보아야 한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1978. 8. 6 현재 (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집	구분		남	여	계	현	예	I		135,65
	주일	I부	219	337	556			주일	II	324,960
		II부	401	878	1,279				III	237,000
		III부	283	509	792				IV	66,055
		IV부	83	154	237				집 일 조	4,265,210
배	주일저녁		196	364	560	배	월 정	484,800		
	삼 일		110	246	356		감 사	353,000		
주	새 신 자		I 21	25	46	주	생 일	61,000		
			II 27	51	78		경 조	45,000		
일	영 아 부		103	105	208	일	특별헌금	442,000		
	유 치 부		92	94	186		동 산	10,000		
학	유 년 부		138	152	290	학	건 축	3,067,652		
	초 등 부		140	147	287		맥주감사	22,500		
교	중 등 부		175	146	321	교	새 신 자	2,470		
	고 등 부		160	167	327		영 아 부	40,580		
회	대 학 부		80	88	168	회	유 치	25,450		
	청 년 부		44	50	94		유 년	40,335		
교	장 년 부		27	266	293	교	초 등	35,596		
	노 년 부		27	72	99		중 등	42,285		
회	산업교육부		39	71	110	회	고 등	67,900		
	계		2,365	3,922	6,287		대 학	94,775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 세	학 습	원 인
2,888	2,711/4,019	1,478/2,705	416/321	204/331	553/662

토막 소식

*...교회설립 25주년 기념행사로 웅변대회를 9월 23일 가졌는데 연제는 선교 및 성전건축의 내용이며 참가 대상자는 중등부 이상 전교인이며 시간은 중교 산전교 육부로 6분의 내용으로 대학부 이상은 7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교회에서는 9월 철야기도를 8일 오후 10시부터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계절학교(여름)종합평가회를 11일 오후 7시에 유년부실에서 각부 지도교역자 부장 및 생활지도담당자들을 모시고 총무국 주관으로 모임을 가졌다.

*...어린이 새신자부에서는 3일 교사기도회를 새신자부실에서 연구수업을 10일 식당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장년 새신자부에서는 10일 자체교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영아부에서는 실계명 외우기 대회를 21일 영아, 유년부실에서 각각 나누어 가진다.

*...유치부에서는 9월 한달을 가을 전체 학생심방의 달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22일에는 교사 기도회를 가진다.

*...유년부에서는 가을 전체 학생 심방을 9월 한달동안 실시한다.

*...초등부에서는 가을 전체 학생 심방을 9월 한달에 걸쳐 실시하며 17일에는 장충단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으며 24일에는 3학기 회보발행을 한다.

*...중등부에서는 9월 한달을 학생심방의 달로 정하였으며 2~3일 동안 교회에서 임원들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에서는 29일에는 교사 철야기도회를 중현 기도원에서 24일에는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한 후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23일에는 제 4회 선교음악회를 본당에서 가진다.

*...산전부에서는 10일 학생특강을 유치부실에서 가졌으며 추석기념 야의예배를 18일 현충사 가졌다.

*...대학부에서는 10일 헌신예배를 드렸다.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 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67—9937 · 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설립기념의 행사가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교대회 성경암송대회, 음악예배, 근속자표창 등 대회 등 특히 9월 3일 저녁에 있었던 음악예배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교회당을 가득히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제 25주년을 맞은 우리가 30주년, 35주년을 내다 보며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뛰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깊이 했다.

보다 내실을 기하고 교우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알차게 성장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요 또 쓰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차체에 새신자부 부지모로 수고하는 이양우 전도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평신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됨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몇가지 특징기획이 필자 사정상 뒤로 미루어지게 됨을 펴 아쉽게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주간으로 수고하시던 이성근 목사님이 부산의 남부민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었다. 후임에 이준교 전도사님이 주간으로 계속 수고하시게 됐다.

따라서 이성근 목사님이 쓰시던 「쉽게 풀어 쓴 기독교 교리」는 이달부터 당분간 쉬게 된다.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준교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행수 오택용 고제원
이사례

주간/이준교 편집국장/이행수
간사/오택용 고제원
기자/성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간충현

9월호

제6권 통권 제57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9월 24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준 교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지난 9월 3일 1, 2, 3, 4부 예배를 통해 교회설립 25주년을 기념하였다.



이날 3부예배시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을 표창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제1·2·여성·대학부 성가대가 연합하여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했다.



또한 이날 성가연주가 끝난 후 유치부실에서 간단한 파티로 교회설립 25주년을 자축하기도 했다



제1회 구역권찰 하기수양회가 지난 9월 4~7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강사는 장경재 목사.



설립해, 1953년도의 이야기

그 당시 김천준 집사를 비롯한 18명은 1953년 9월 6일(주일) 중구 인현동에 자리잡은 한명덕 집사 댁 2층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그 첫예배에서 새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는 한편 이 교회의 앞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간절히 빌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교회는 그동안 물색중이던 대지(현 중현교회당의 일부) 310평과 건물 19평(현 별관 위치)을 65만원에 계약하고 계속 기도하며 더욱 분발하던 중에 김창인 전도사가 서울로 돌아옴에 따라 1개월 후인 10월 11일 현재 고 수가 60명으로 증가하여 울지로 2가 이상옥 권사 댁으로 예배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두 주일 뒤인 10월 26일 마침내 지금의 장소인 충무로 5가 36번지로 이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일본정치 때엔 조선극장과 대원각이란 유명한 요리집이 있다가 불타버린, 음란과 방탕의 소굴로 알려진 곳이다 바로 이 터위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인 오늘의 중현교회당이 우뚝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낼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중현 20년사에서〉

실로암
못가에서